



신안 임자도 '희망의 툠립'

13일 신안 임자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10만㎡의 광활한 대지에 활짝 핀 형형색색의 툠립 꽃을 감상하고 있다. 신안군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임자도에서 '툠립과 바다 그리고 모래, 꿈과 희망을 주는 축제'를 주제로 '신안 툠립 축제'를 개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대가 또 아프다

옛 경영진 이메일 성명서 등 복귀 시도 조선대 "비리 경영진 안돼" 정상화 진통

조선대학교가 옛 경영진의 공식적인 복귀 시도로 정상화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언론과 대학 내 중·고교 등 구성원들에게 박철웅 전 총장의 아들인 박성섭 전 이사의 이름으로 '조선대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과 대학 발전 방향'이라는 발표문이 이메일과 팩시밀리 등으로 전송됐다. 박성섭 전 이사는 발표문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설립재단(옛 경영진)을 배척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조선대가 벌이고 있는 옛 경영진 복귀

저지 투쟁에 대해 경고했다. 이는 최근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이사 파견 움직임에 대해 상경시위를 벌이는 등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 경영진 복귀지지를 위한 천막농성, 가두 시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여론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씨가 현 경영진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법적 대응방향을 밝힌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시이사 파견과 강행 방침에 힘을 실어주는 의도로 조선대 측은 보고 있다. 박씨나 옛 경영진 명의의 발표문은

그동안 복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으나 지난 달부터는 현 경영진에 소수 기득권세력으로 몰아세우거나 임시이사 파견 저지 움직임에 동참하지 말 것을 권하는 등 다분히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박씨는 장학사업 확대와 초일류 대학 마스터플랜 수립, 한방 병원 설치 등의 대학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박씨 측과 옛 경영진의 발표에 대해 조선대 측은 공식적으로나 법적·행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조선대 측은 박씨 등이 주장하는

'조선대 설립재단'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단체이며, 이 단체명으로 대학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지난 1946년 9월 7만2천여 명의 조선대 설립동지회가 주체가 돼 세운 학교로 옛 경영진이 사용하는 명의인 '조선대 설립재단'은 학교 설립과 전혀 무관한 임의 단체라는 것이다. 조선대 관계자는 "옛 경영진이 수십년간 얼룩진 비리로 물러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경영 복귀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비리 사학들에 대한 엄중한 경

계 차원에서라도 즉각적인 정이사 파견을 통해 조선대 옛 경영진의 복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이 참여한 옛 경영진은 지난 1988년 118일간 이어진 학내 민주화 운동 등으로 물러났으며, 조선대는 지난해 6월 말까지 임시이사 파견과 운영됐다. 조선대는 참여정부 때 추진할 계획이었던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교과부가 '선 임시이사 파견, 후 정이사 선임' 입장을 고수하자 '옛 경영진 복귀를 돕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구자범의 유쾌한 파격

〈광주시향 새 지휘자〉

오케스트라 교도소 공연
연주회장에 와인바 운영
지정좌석제 도입하고
초대권 발행은 제한



'모든 관행을 깨트려라'

지난달 광주시향교향악단 지휘봉을 잡은 구자범(39·사진) 상임지휘자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오는 30일 취임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구씨의 요즘 발걸음은 한마디로 '파격의 연속'이다. 모두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시민이 원하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선언했던 광주시향은 오는 5월 29일 광주교도소에서 공연을 갖는다. 시향의 경우 지금까지 '찾아가는 예술단' 활동을 통해 양산불등을 구성, 공연을 나선 적은 있지만 80여명에 달하는 풀오케스트라가 문화 소외 현장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다.

앞으로 정기연주회가 열리는 광주문예회관은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사교의 장'으로 변신한다. 공연 시작 전과 인터미션 시간에는 와인바 맥주, 주스를 판매하는 코너를 운영, 극장을 찾은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TV 스포츠 광고, 인터넷 카페 운영, 지정좌석제 도입, 티켓 가격 차별화, 협연자 출연료 파격적 인상, 초대권 발행 제한 등 구씨의 과감한 발상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고속철 오송~광주 2014년 완공 확정

'2012년 조기 완공' MB 공약 사실상 물거품

광주~목포 2017년...무안공항 경유 포함 안돼

국토해양부가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을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을 2017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호남고속철도 기본 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을 다음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호남인의 기대를 모았던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완공 사업'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14일 국토해양부의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오

송~광주 구간의 공사 기간은 2014년으로 기존의 기본계획에 비해 1년 단축된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은 기존의 기본 계획과 같은 2017년에 완공되며 무안국제공항 경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송~광주 구간의 공사 기간이 1년 단축됨에 따라 공사 비용은 총 11조3천382억원으로 기존의 10조5천417억 원보다 7천865억원이 늘어났다. 또, 남광주역이 광주역으로, 송정역이 광주송정역으로 명칭이 변경

됐고 광주 차량기지도 들어설 지역도 광산구 유계동 일원에서 광산구 산정·장수동 일원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 같은 호남고속철도 기본 계획 변경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이라는 대선 공약에 크게 못 미쳐 호남민심의 강력한 반발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광주~목포 구간은 해저터널을 통한 호남고속철도의 제주 연장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공항과 고속철도가 연계되지 않으면서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광주~목포 구간은 무안국제공항 경유

문제 등에 대한 최종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기존의 기본계획을 변경안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정부 측에서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에 대해 보다 명확한 계획을 밝히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산 을)은 "광주~목포 구간은 오송~광주 구간과 함께 공사를 시작하면 충분히 2014년에 완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무안국제공항 경유는 호남고속철도의 제주 연장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반드시 광주~목포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00만불 일부 재투자 연철호씨 해외투자사 지분 상당수 노건호씨 소유 확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대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일부가 재투자된 E사의 지분을 장남 건호씨가 소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4면〉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작년 1월 해외 창투자인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를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우고 그해 2월 이 법인의 홍콩 계좌로 박 회장의 돈 500만 달러를 송금받았

으며 다른 투자금은 유지하지 않았다. 연씨 측은 500만 달러 중 절반만 미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회사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계좌에 남겨뒀다고 했는데, 이 돈의 일부가 연씨가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E사에 투자됐다는 것이다. 건호씨는 애초 타나도사의 대주주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E사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연씨가 E사의 국내 사무소 격으

로 작년 4월 자본금 5천만원을 들여 '엘리쉬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베트남에 찾아가 박 회장에 투자를 부탁하고, 500만 달러를 송금받아 이 돈을 사용하는데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3일 오전 건호씨를 재소환하려 했으나 몸이 좋지 않다고 해 자료만 제출토록 하고 14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연남부스



제1회 세계슬로우걷기축제

The 1st World Slow Walking Festival

2009년 4월 18(일) ~ 4월 19(화) 07:00
개최처 - 영암읍 PM 2000원도, 신지(행사장)

1일차 14일 18(일) - 영암 신지(행사장), 개편 공연
개막식, 세계슬로우걷기유치원과 함께-신지 행사장, 송문무사지 - 공평동 포럼, NCC(교도)버스, 공평(행사장)

2일차 14일 19(화) - 영암도
2009년도 슬로우워킹대회, 세계슬로우걷기대회와 함께-영암도, 영암도 기념식

행사 산지(행사장) 프로그램은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영암도 천막무로이행하는 조기종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홈페이지 : www.SLOWCITYWANDU.COM
● 전화문의 : 061-500-5000/5050
● 주 최 : 영암도, 내셔널(영암)본부
● 후원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남도,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